

## 영어공용어론에 대한 소고(小考)

최종호

스페인·중남미학과

### 1. 서론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와 인근 일본에서 영어를 공용어화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 논의를 제기한 측의 입장은, 오늘날 영어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만국공통어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식, 정보의 전달매체가 될 인터넷 정보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공용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반면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영어공용어화가 가져올 언어주권의 문제, 시행 후 정착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의 문제, 정착 이후의 국론분열, 국민계층화의 문제 등을 이유로 영어를 공용어화하기보다는 영어교육, 나아가 외국어교육 방법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언어학 및 언어학습이론 측면에서 영어공용어화 문제를 조명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어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사례들을 통해 영어공용어화라는 정치적 결정이 실제 우리 사회의 영어능력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예측될 수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언어환경에서 영어공용어화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검토해보며, 만약 불가피하게 우리나라가 영어공용어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언어환경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본다. 먼저 2장에서는 영어공용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만약 영어공용어화가 가능할 경우 이것이 범국민적인 영어능력 향상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한다. 이어 4장에서는 현재의 영어공용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영어공용어화가 가능한 지 등의 문제를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5장에서는 영어공용어정책 시행 이후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언어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다.

## 2. 영어공용어론의 배경<sup>1)</sup>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공용어화 논쟁은 1998년 복거일의 산문집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가 출간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경제인과 문인들의 공동 토론회, 언론매체들의 토론회 및 특집방송 등을 거치면서 많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마침내 2000년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sup>2)</sup> 한편 일본에서는 2000년 초 총리 자문기구인 ‘21세

---

1) 2장의 내용은 한학성(2000), 고종석(1998), 후나바시 요이치(2000) 및 2000년초 조선일보 신년특집 ‘세계로 통하는 길 ; 영어가 경쟁력이다.’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학성(2000)은 우리사회의 영어문제는 영어교육의 문제이고 현재의 영어구사력으로는 영어공용어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고종석(1998)은 과거 서양문명에서의 라틴어, 그리스어의 역할, 일본개화기의 한자의 역할 등을 예로 들면서 복거일의 영어공용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 16인 멤버 중 한 사람인 후나바시 요이치(2000)는 영어공용어화 문제를 국가의 대외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조선일보 기사들은 주로 세계 각국에서의 영어 사용 현황과 영어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교육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공용어화 논쟁의 시발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및 거대 금융자본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경험하는 등 내부적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영어공용어화론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개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

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 보고서의 교육개혁 부분에 “사회인이 되기 전까지 일본인 모두가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간행물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삼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영어공용어화 문제가 공식적으로 개진되었다.<sup>3)</sup>

이들 주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미래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문명으로 통합될 것이며 그 때가 되면 모든 사회에서 공식언어로 쓰일 국제어가 탄생할 것인 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국제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언어는 영어이고 또 영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용어화하는 것이므로 영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여 미래세계에 대비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복거일(1998 pp. 152,173,191)에 따르면 미래세계에는 특정 민족어 또는 지방어는 국제어에 밀려 일부 학자들이나 작가들에 의해서만 보존되는 ‘박물관 언어’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런 민족어를 모국어로 가진 민족은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어 질 것이고 그 구성원들에게는 자신의 민족어가 결국 잠당하기 매우 힘든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어(민족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세

---

에 교육에서의 불안감, 영어상업주의 등이 가세하여 논쟁을 가열시켰다고 볼 수 있다. (KBS 위성2 밀레니엄 포럼 ‘영어공용어화 필요한가?’ 2000년3월5일 참고) 한편 영어공용어화론을 제기한 사람들 중 복거일 (1998, 2001)은 궁극적으로 한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단일공용어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반면 고종석 (1998), 정과리, 함재봉 (이상 정시호 2000 pp.7-8 참고) 등은 복수공용어, 즉 한국어외에 또 하나의 공용어로 영어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주된 논점으로 삼되 복거일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의 주장임을 명기한다.

- 3) 일본에서는 과거 명치유신 이후, 2차 대전 이후 등 이미 두 번에 걸쳐 영어국어론 혹은 영어공용어론 논의가 있었으며, 영어 외에도 명치시대에는 네덜란드어 공용어화론, 2차 대전 이후에는 불어 채용론 등이 제기되었다 (정시호 2000 pp. 12-33 ; EBS 미래토크 ‘영어는 세계공용어가 될 것인가’, 2000.3.5일 방영). 한편 영어공용어론과는 별도로 최근 일본에서는 국제화시대에 일본어를 지키고 발전시키자는 ‘일본어 바로 세우기 운동’도 활발한데, 1999년 초에 출판된 <일본어 연습장>이라는 책은 35주 동안 일본서점가 논픽션 부분 1위를 차지하면서 160만부가 팔렸으며, 그 외에도 여러 권의 일본어 학습 관련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면서 일본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 1999년 11월 3일자 ‘일본어 지켜야 일본이 산다’).

대를 고려할 때 갑작스런 모국어의 변경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우선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동 공용어로 채택하여 사용하되 새로 태어나는 세대에게는 국제어인 영어와 민족어인 한국어 사이에서 모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다.

한편 영어공용어론은 사회평등의 이념을 담고 있는데, 즉 과거 유럽과 동아시아지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와 한자가 그것을 아는 일부 엘리트계층의 지식 및 정보 독점화 도구로 작용하였듯이 공용어가 아닌 외국어로 남아 있게 되는 영어는 영어를 공부할 기회를 갖는 특정 계층의 지식, 정보 독점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영어가 공용어로 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지식, 정보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된다. 민족주체성,

---

4) 라틴어와 한자는 과거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엘리트 계층의 정보 및 지식 독점 도구로 작용한 부정적 측면이 있었던 반면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 등을 체계화, 보편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에도 중기 이후 및 명치시대 이후 일본에서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양 여러나라의 서적들을 대단위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의 학자들은 서양의 낯선 개념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일본 고유의 말인 ‘와고’ (和語)가 아닌 ‘칸고’ (漢語), 즉 한자를 이용했다. 이 칸고, 즉 일본 한자어는 19세기말 이후 한국과 중국등 한자문화권으로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서 서양의 문화, 과학, 철학 등을 이해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는 바, 만약 일본인들이 서양 어휘를 번역하면서 당시 동아시아 지역 공용어였던 한자어 칸고가 아닌 자기들만의 언어인 와고로 번역하였다면 이 와고 어휘들은 그렇게 쉽게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은 당시 번역어의 와고-칸고 쌍 ; 케이요오시-형용사(形容詞), 카가쿠-화학(化學), 주우료쿠-중력(重力), 리세이-이성(理性), 이시키-의식(意識), 분파이-분배(分配), 세이지-정치(政治), 테쓰가쿠-철학(哲學), 킨유우-금융(金融), 등등) 이와 비슷한 상황은 유럽에서도 있었는데, 즉 이 지역에서도 새로운 용어나 추상적 개념 등은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어휘 또는 그 어원을 사용하여 표기했다. 만약 유럽 각국이 당시 유럽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아닌 자기 나라 고유한 말로 제각기 이런 용어나 개념들을 표기했다면 그렇게 쉽게 전체 유럽,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복거일의 영어공용어론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고종석(1998)은 과거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라틴어와 한자가 했던 역할을 오늘날에는 잠재적 보편어인 영어가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라틴어와 한자는 당시 일부 식자 계층에 독점되었던 바, 영어는 공용어화시킴으로써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고종석 1998 pp. 231-246, 278-291).

언어주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사회에는 외래문명이 만연하여 외래문명과 재래문명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진 상태이며 더구나 우리가 우리의 재래문명으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상 ‘조금 일찍’ 받아들인 외래문명인 경우가 대부분인 바, 영어도 결국 ‘조금 늦게’ 받아들일 외래문명 또는 조금 늦게 인정받을 재래문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인다고 우리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손상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영어공용어화 이후 우리 후손들에 의해 영어가 능숙하게 사용될 경우 우리의 전통과 문화도 이들에 의해 국제어인 영어로 표현되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향유될 것이고 따라서 더 큰 활력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영어공용어화 문제가 거론되기까지 영어는 20세기 중반이래 국제사회에서 국제어로서의 위상을 점진적으로 높여오고 있다. 오늘날 영어를 배우는 것을 단지 미국, 영국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인데, 이는 영어가 이미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나라의 수는 약 70여개국에 달하며 100여개국에서 영어를 제1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다(중앙일보 2000.1.25일자). 아시아권의 경우 이미 세계 최대의 영어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영어를 모국어 또는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인구는 이미 3억 5천 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소속 사회의 정치, 경제적 상류층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의 인구대국 인도는 영어사용 가능자가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아 전체 인구 중 약 10%인 1억여명에 달하는데, 최근 인도가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풍부한 영어사용인력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후나바시 요이치 2000 pp. 49-59 ; 조선일보 2000.6.19일자 ; KBS1 특집방송 ‘소프트웨어의 강국 인도’ 2001.2.14일 방영). 또한 1993년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이 해 전 세계 번역도서(65,297권)의 원서 중 약 50%가 영어(32,219권)로 되어 있으며 2위인 불어(6,732)와는 약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보전달 매체가 될 인터넷 정보는 약 8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다(중앙일보 1997.12.31일자 ; 후나바시 요이치 2000 p. 74). 그밖에도 전 세계 출판서적의 75% 이상, 인터넷용어의 80% 이상, 전자상거래의 96%가 영어로 이루어진다 (EBS 미래토크 '영어는 세계공용어가 될 것인가' 2000.3.5일 방영). 더욱이 언어의 가치는 메트카프(Metcalfe) 법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즉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그 사용자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그 언어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어휘증가나 표현방법 측면에서도 점점 더 유리한 정보전달 상태로 진화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미 영어는 그것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지구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영어공용어론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영어를 더 이상 외국어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생존 수단 of 하나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지적 유산으로 그리고 적어도 우리의 언어생활을 보완해 주는 국제어로 받아들여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 3. 영어공용어화의 기대효과

만약 영어공용어론 주창자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영어공용어화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면 이는 영어학습환경 조성 측면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영어역량, 특히 사춘기 이전 세대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인 바, 이는 영어가 우리

---

5) 메트카프의 법칙(Metcalfe's law) : 경제학의 망 경제(network economy) 개념과 유사한 전산통신망의 효용에 대한 법칙으로 어떤 망의 가치는 그 사용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가설. 역사적으로 철도의 궤간, 타자기 자판, 컴퓨터 운영체제 등 많은 부문에서 일찍 시장에 나와 표준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그 품질이나 편리함과는 상관없이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선순환의 혜택을 보아 왔다. 이 가설에 따르면 언어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는 언어는 점점 더 우세하게 된다 (북겨울 1998 pp.166-169 ; 후나바시 요이치 2000 pp. 71-73).

사회에서 통용되는 제2언어로 자리잡아 이민자들이 현지 언어에 친숙해지고, 특히 그 자녀들이 현지 언어를 쉽고 완전하게 습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영어교육체제나 그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도 없지는 않겠지만<sup>6)</sup>, “10년을 공부해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교육 실태를 볼 때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외국어로 교육받는 경우 능숙한 영어구사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후반 S.D. Krashen에 의해 제안된 모니터이론은 이러한 언어환경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언어학습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습득’과정과 ‘학습’과정으로 구분하는데, 습득이란 선천적인 언어능력의 도움을 받아 직관적, 자연적, 무의식적으로, 대개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학습이란 주로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도움을 받아 의식적, 조종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언어사용은 습득한 언어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의식적으로 학습한 언어지식체계는 단지 습득한 언어체계의 출력을 감시, 조정, 수정하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능숙한 언어사용은 자연적인 의사소통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언어를 배운 이후에야 가능하며 학습과정을 통해 배운 형식적인 언어지식이나 언어규칙은 능숙한 발화를 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7)</sup> (박이도 1996

- 6) 현재의 우리나라 영어교육상황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영어가 국민적 강박감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많은 분야의 평가척도가 되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어공부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정된 영어교육의 자원이나 시설 등의 효율성이 하향 평준화되고 결국 학습자의 영어수준도 하향 평준화된다. 만약 영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원이나 시설이 제대로 쓰인다면 현재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영어학습이 가능할 것인 바, 교실 규모의 축소, 능력있는 교사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해 학습효율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어공부가 영어공부로 거의 획일화, 무조건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역시 근래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화, 다문화화 움직임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 7) 이와는 달리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능숙한 언어사용이 가능하다는 경험주의적 언어습득관도 있다. 예를 들어 성인도 600시간 정도 직접교수법(direct method)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면 유창한 언어구사가 가능하고 300시간 정도는 직접교수법

pp. 147-155에서 재인용). 이 이론에 따르면 결국 한국사회가 미래의 지구제국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어인 영어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영어를 학교교육 등의 인위적이고 제한적인 공간에 가두어둘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속에서 통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이루는 유력한 방법은 영어를 공용어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근래 인간의 언어습득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 생득주의 언어습득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인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 LAD)와 후천적인 언어경험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마치 식물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씨앗과 그 씨앗의 성장을 도와주는 햇빛, 수분 등의 촉매가 함께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선천적인 언어습득기관인 LAD는 다른 대부분의 인체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성장기의 일정시기, 구체적으로는 사춘기 이전까지만 언어습득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성을 보이며, 따라서 이 기간 중 충분한 언어경험이 주어질 경우 여타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언어든지 쉽게, 그리고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언어경험이 충분하더라도 만족할 만큼의 언어습득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sup>8)</sup> (양동휘 1994 pp. 18-33 참고). 결국 이 이론에 따르면 초등 또는 중등과정에서부터 ‘10년 이상’ 영어를 배우고도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것은 영어경험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

---

으로, 300시간 정도는 독해로 외국어를 학습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독해와 말하기 능력을 갖게 된다는 등의 관찰이 보고된 바 있다(박경자 1984 p. 201).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외국어 상황에서는, 의식적인 학습을 통해 언어에 숙달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 많은 언어교육학자, 특히 외국어교육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을 통해 언어학습과정을 조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집중학습(immersion programs), 직접교수법에 의한 성과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수업에 의한 조종이 언어오류를 유발하는 등의 역기능을 보이기도 한다.

- 8) 생득주의 언어습득이론 및 이 이론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논거, 그리고 이 이론에 입각한 조기 외국어교육론 등에 대해서는 최종호(2001)을 참고

라의 언어환경 때문이며, 성인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영어권 국가에 체류하면서 영어경험을 하고서도 영어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언어습득기관의 활동시기와 관련된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영어공용어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어습득 가능성을 결정하는 두 요인 가운데 하나인 영어경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춘기 이전의 세대에게는 생물학적 언어습득능력과 그의 발현에 필요한 영어경험이 모두 주어지므로 마치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어학습에서 그 언어적 환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학습동기인 바, 영어가 공용어가 되면 영어학습동기 유발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언어적 발달은 사회성의 발달이나 정신력 발달과 직결되므로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 모국어나 제2언어로 통용될 경우 거의 절대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반면에 현재와 같이 영어가 외국어로 남아 제1언어습득 이후에 이루어지는 학습 대상인 경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욕구 해소나 정신적 발달 등은 기본적으로 이미 제1언어로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사회성이나 정신력의 발달과 관련되는 동기유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또한 현재와 같이 영어가 외국어로 학습되는 상황에서는 학습시간외에는 영어로의 의사소통을 거의 강요받지 않지만 만약 공용어가 되면 사회적 생존 수단의 하나가 되므로 상당한 만큼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영어가 공용어가 되면 직접적인 영어학습과정에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즉 영어가 외국어로 학습대상에 그칠 경우 학습내용을 활용해 보는 것이 교실에서의 모의실험에 그치는 반면 공용어가 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경우 배운 내용을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 피드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4. 영어공용어론의 문제점

영어공용어론 주장자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결국 인위적인 영어공용어화 과정과 그것이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3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효과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영어구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4.1절에서 살펴보듯이 인위적으로 공용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역내 정치적 문제나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오랜 단일언어 국가가 미래사회를 예견하여 스스로 특정 언어를 공동 공용어로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공용어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이다. 또한 설사 영어공용어화 정책이 인위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영어가 우리나라에서 ‘공용어’라는 취지에 어울릴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즉 한학성(2000 p. 45)이 지적하듯이, 국민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바,<sup>9)</sup> 영어를 잘 하기 위해 영어공용어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공용어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영어수준을 먼저 높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어공용어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미래사회에서의 민족어의 운명에 대해서도 복거일(1998 pp. 152,173,191)은 국제어인 영어에 밀려 대다수의 민족어가 소멸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 70여개국의 최근의 언어정책동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각 나라는 오히려 자국의 민족어를 보호, 육성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동유럽의 예처

9) 이와 관련하여 박이문은 ‘영어공용어화가 바람직하다해도 그것은 몇 세기 후 영어가 널리 자연적으로 보급된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한다(고종석 1998 p. 278에서 재인용). 이 말은 현재의 영어공용어론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즉 공용어화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상태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어공용어론은 반대로 공용어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능통함을 구하겠다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4장과 5장에서 제기되는 영어공용어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결국 여기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럼 강대국의 언어권, 문화권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EBS 난상토론 ‘영어공용화’ 1999년 11월).

이와 같이 현재의 영어공용어론은 그 자체내에 서로 모순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많은 가정이나 주장들을 내포하고 있는 바, 본 장에서는 그 중 인위적인 공용어 지정의 문제와 영어공용어화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모국어 선택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공용어 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공용어에 인위적 변화가 있었던 여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득주의 언어습득이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 4.1 공용어의 개념과 인위적인 공용어 지정의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영어공용어화 논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공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공용어를 지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채 논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 등에 응하는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논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어공용어화의 구도가 서로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쓴다는 것과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전자를 공용어화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어느 정도 영어공용어(公用語, common language)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논의는 영어의 필요성,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운동 정도에 그치지만 후자쪽으로 본다면 이 논의는 법적, 제도적 문제이므로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 현금의 영어공용어논쟁에서의 공용어는 물론 후자쪽 개념이며, 이 때 공용어(公用語, official language)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식적인 표준언어로 삼아 공공기관이나 공교육 등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표성을 인정받는 언어’를 지칭한다.

따라서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되면 현재의 한국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각종 정부의 법령이나 문서, 교육, 언론매체, 사법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적인 업무에서 한국어와 병행하여 영어가 쓰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한 사회의 공용어는 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고 또 그 구성원 모두가 모국어로 배우는 언어, 즉 ‘민족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정상적이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이와는 달리 공용어가 인위적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도 한다.

공용어가 인위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통용될 때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회원국의 언어가 서로 다를 때 국민 또는 회원국 상호간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특정 언어, 또는 언어들을 공식 언어로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예는 다시 들로 나눌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러시아, 동아프리카 등의 경우처럼 국가 또는 지역내에 통용되는 언어가 수십 내지 수백 개에 이르러 그 중 특정언어 하나(러시아어, 스와힐리어) 또는 몇개를 지역내 공식적인 소통언어로 정한 경우이며, 다른 예는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경우처럼 지역내 구성원간의 갈등 때문에 어느 언어도 합의하여 공용어로 정하지 못하고 중립적이면서 실용적 가치가 있는 제 3의 언어를 또 하나의 공용어로 도입하는 경우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타밀계가 주요 민족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민족간 배타성을 줄이고 국가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경제논리를 앞세워 영어를 제 1공용어로 받아들이게 된다.<sup>10)</sup> 후자 즉 국제기구에서의 공용어 지정은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의 예에서 볼 수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현재 11개의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희망하는 국가가 모두 가입될 경우 공용어는 2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10) 싱가포르에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타밀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중 영어가 제 1공용어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표되는 언어는 타갈로그어(현 필리핀어)이나 사용인구는 세부어가 더 많은 바, 양자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양자에 중립적인 영어를 제 3의 공용어로 받아들였다(후나바시 요이치 2000 pp. 160-168).

복수의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경우 그 구성원들은 모든 공용어를 다 잘할 필요도 의무도 없으며 공용어로 지정된 언어 중 하나(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더라도 공식 업무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위스가 헌법에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3개의 공용어를 지정한 것이나 캐나다가 영어, 불어를 공용어로 정한 것은 국민들에게 그 복수의 공용어를 다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를 사용하면 공식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는 국제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즉 유럽연합의 11개 각 언어권은 독립된 언어주권을 행사하며 서로 다른 언어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통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sup>11)</sup> 요컨대 복수공용어란 모든 구성원이 그 공용어들을 다 잘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만약 영어공용어론자들이 우리 사회의 공용어에 영어를 추가하여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어를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수공용어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만약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어권, 영어권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영어공용어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5장 참고).<sup>12)</sup>

한편 공용어가 바뀌는 대표적인 경우는 식민 지배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한 언어권이 다른 언어권으로 병합 또는 종속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애초의 공용어가 소멸될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호주의 원주민어나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언어, 만주어 등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에 밀려 소멸되고 있는 경우가

- 
- 11) 회원국 사이의 언어문제 때문에 유럽연합내 유럽위원회는 전체 직원 1만 4천여명 중 약 40-50%가 통역, 번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럽연합 총지출의 약 1/3에 해당한다(후나바시 요이치 2000 p. 170 ; 정시호 2000 p.63).
- 12) 실제 영어, 불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캐나다의 경우 국민들 중 약 67%가 영어만을, 약 18%가 불어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두 언어를 모두 잘 할 수 있는 국민은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한확성 2000 p. 118 주 13).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배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면 우리 말이 같은 운명에 처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반대로 식민지배 등으로 인해 한 사회가 다른 사회로 종속되더라도 언어의 종속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의 엘세니초시는 미국의 한 지역이면서도 1999년에 공식언어로 영어를 금지시키고 스페인어를 채택하였는데(중앙일보 1999.8.16일자), 원래 스페인어권인 멕시코 땅이었던 이 도시는 1840년대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멕시코가 패함으로써 미국영토, 즉 영어권 지역이 되었으나 150여년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공용어, 즉 영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스페인어권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밖에도 카리브해 연안의 푸에르토리코 역시 원래 스페인어권 지역이었으나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함으로써 미국령이 되었고 1917년 이후에는 미국의 준 주(州)가 되었으나 100여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능통한 국민은 약 24% 정도에 불과하다(한학성 2000 p. 119 주 19). 또한 영국 또는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시아권의 인도, 필리핀 등에서도 영어에 능통한 국민들의 비율은 푸에르토리코보다 더 적다(후나바시 요이치 2000 pp. 69-70의 도표 참고). 복거일(1998, 2001)은 우리나라를 먼저 스위스나 캐나다처럼 한국어, 영어의 복수공용어 국가로 만들었다가 이후 적절한 시기에 영어로 단일 공용어 화시킨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전술한 예를 볼 때 그런 인위적인 과정이 우리 사회가 영어권 사회가 되고 또 국민 대다수의 영어구사력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 4.2 언어학습이론 측면에서 본 영어공용어화의 가능성

언어학습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 중 하나는 언어 학습효과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 역할을 하는 요인은 그 학습시기 즉 성장기의 어느 시기에 언어학습을 시작하는가와 학습기간 중 얼마만큼의 언어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이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언어학

습/습득이 생득적인 언어습득기관의 도움을 통해서만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기관은 적절한 언어경험이 주어질 경우 성장기의 특정 시기, 구체적으로는 사춘기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에만 ‘충분히’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sup>13)</sup>. 이러한 가설은 외국어학습, 즉 한 언어(모국어)를 어느 정도 또는 완전하게 습득한 이후 이루어지는 다른 언어(외국어)에 대한 학습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사회에서 이미 사회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이후 A세대)에게는 영어공용어화라는 사회적 변수가 영어능력 향상이나 영어학습의 효과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sup>14)</sup> 왜냐하면 영어가 공용어가 되더라도 이들 세대에는 영어학습에 충분한 정도의 영어경험이 우리 사회에 제공되지 못할 것이며

---

13) 언어습득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 또는 이론을 ‘언어습득 결정적 시기론’이라 부른다(박이도 1996 제14장). 최근의 뇌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비단 언어습득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지, 지각 기능 등은 성장기의 일정 시기에만 자연적인 습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각기능의 경우 생후 3개월에 최고점에 달하고 대략 12세에 이르면 습득이 중지되는데, 이는 청각장애인이 사춘기 이전 되도록 어린 시기에 치료받을 경우에만 청각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로도 잘 증명된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침묵에서 소리의 세계로’, 2000.4.1 일). 또한 시각기능의 경우는 3세 미만의 아주 어린 시기에만 습득이 가능한데, 이는 선천성 백내장을 앓는 유아의 경우 3세 미만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수술을 받아도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즉 이 시기가 지나면 외과적 수술을 통해 백내장의 원인을 제거하더라도 이미 시각기능의 습득 시기가 지나버려 정상적인 시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KBS 첨단보고 뇌과학, 1999.11.20-22일).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의 뇌신경과학적 실험 및 분석들에 대해서는 최중호(2001 제3장)를 참고

14) 새로운 제2언어를 배우는 데에는 나이 어린 학습자가 성인보다 크게 유리하다는 것이 언어학습이론에서의 유력한 학설이지만 성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창한 제2언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없지 않다(박영순 1997 pp. 73-75 참고). 하지만 성인들의 경우 배운 제2언어의 유창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 어린 학습자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A세대는 영어공용어화 이후 언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영어학습에 투입해야 할 것이며, 영어공용어화라는 변수 자체로부터 받게 될 도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에게는 언어를 배우는 데에 언어습득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어공용어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적절한 영어경험 환경과 동기가 주어졌을 경우 사춘기 이전 세대(이후 B세대)에게서는 영어학습 및 영어구사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어공용어화의 사회적 기대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시점은 B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될 시기, 즉 적어도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며, 현 영어공용어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중언어사회 혹은 영어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60년 정도가 흘러 B세대 이전 세대가 은퇴하고 언어적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이후가 될 것이다.<sup>15)</sup>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영어공용어화를 통해 B세대에게 충분한 영어경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B세대가 얻을 영어경험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모(A세대)나 주위의 친구들에게서 나와야 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영어경험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영어가 공용어로 되더라도 국내 영어환경에 최소한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두 세대만큼의 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그나마 그런 변화를 이끌 영어경험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4.1절에서 언급한 미국 텍사스주의 엘세니초시는 실제 이런 가정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영어공용어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 및 언어적 환경 변화가 있었고 또 15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사회에 바뀐 공용어인 영어의 습득이 가능할 만큼 영어경험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거일(1998,2001)은 영어공용어화의 과도단계에서 자연스럽게

15) 단순히 언어학습이론만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사회적 변수 등을 고려한다면 그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런 모든 가정은 계속하여 영어가 현재와 같은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고, 또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있어 영어공용어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 가능하다.

영어세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민족어)와 영어(국제어) 사이에서 모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언어습득에서의 언어경험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모국어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부모 등 주위 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모국어로 받아들이는 바, 국어, 영어 중 모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그 아이의 부모나 주위 사람 중에 국어, 영어에 모두 능숙한 사람이 있는 극소수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영어를 못하는데 아이가 영어를 모국어로 선택할 경우 아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배울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어떤 식으로든 영어를 배운다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sup>16)</sup>

16) 고종석(1998 p.291 주6)은 자신은 이미 성인이 되어 영어를 배웠으므로 죽을 때까지 영어로 글을 쓸 수는 없겠지만,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에게 영어와 한국어 중 하나를 모국어로 고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호자로서 거리낌없이 영어를 택하도록 하겠다고 단언한다. 이런 경우 아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배울 수 없을 뿐더러 만약 어떤 식으로든지 배운다면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는 심각한 의사소통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찬성, 반대 입장을 모두 포함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영어공용어론 중 상당 부분은 이렇게 현실성 없는 제안들을 쏟아 놓고 있다. 한편 현재 지구상의 약 6천여개의 언어 중 보름마다 하나 꼴로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데,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 언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되는 상태로부터 시작된다(정시호 2000 pp. 42, 66 ; 후나바시 요이치 2000 p.111).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복거일과 고종석이 예측하듯 우리나라의 대다수 부모가 자식에게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모국어로 권장한다면 영어공용어화와 함께 한국어는 결국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실제 정부가 공용어문제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온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고려해 1980년경부터 공용어 중 하나인 중국어를 강화시키되, 그 이전까지 많이 사용되던 방언이 아닌 보통어(중국표준어) 배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과 방언밖에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후나바시 요이치 2000 pp. 163-164).

## 5. 영어공용어정책 시행 이후상황에 대한 예측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오랜 단일언어국가가 인위적으로 공용어에 변화를 줄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몇몇 나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성공도 보장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영어공용어화가 시도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언어상황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예측해본다.

공용어(公用語)라는 용어가 시사하듯 영어공용어론은 정부의 제도적 혹은 정책적 의지를 통해 영어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용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영어를 제1 혹은 제2공용어로 선포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 교육, 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영어보급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 즉 학교에서는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국회 등 공공기관의 공식문서는 한국어, 영어로 병기하며 우리 사회를 영어에 보다 호의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민간계몽에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영어공용어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견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비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복거일 2001 pp. 144-145 ; 후나바시 요이치 2000 pp. 235-245 참고). 이러한 사전준비를 통해 어느 정도 우리사회에 영어사용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영어공용어법이 발효될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복수 공용어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복수공용어시대를 가장 먼저 실감할 수 있는 곳은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과 학교의 영어교육현장 그리고 일부 언론 및 민간 기업체 등이 될 것이며, 반면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법제화과정이나 영어공용어화 준비과정에 비해 오히려 체감하는 변화의 정도가 더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수공용어법이 일반국민에게 두 언어를 다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또 대다수 국민들의 영어구사력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도

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상태는 적어도 한 두 세대가 지나 본격적으로 영어사용계층 혹은 영어세대가 출현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 두세대가 지나 영어사용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몇 가지 언어생활에서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첫번째는 한국어화자와 영어화자(한국어, 영어의 이중언어화자 포함)로 국민들이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사용계층의 출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어습득에 필요할 만큼의 영어경험을 언어습득기인 어린 나이에 제공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즉 충분한 만큼의 영어경험을 제공받는 경우는 영어사용자 혹은 영어, 한국어의 이중언어사용자가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현재와 같은 한국어 단일언어사용자로 남게 된다. 한편 언어습득시 언어경험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영어경험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일부 상류계층에 국한될 것이다. 따라서 영어사용계층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일부 상류층에서 나올 것이며,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몇몇 경우에서 보듯이 이런 언어양분화 혹은 언어계층화는 세대가 지날수록 가속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다.<sup>17)</sup>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한국어사용자와 영어사용자로 양분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이중언어사회가 되고 그로 인한 사회분열, 국민계층화 등의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언어로 인한 사회분열의 예는 세계 각지의 이중언어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언어전쟁으로 날이 새고 진다”는 벨기에를 들 수 있다. 벨기에에는 3개 정도의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이중언어사

---

17) 인도의 경우 과거 영국 식민시대에 영어를 구사하던 엘리트층이 그대로 지배계층이 되었으며 그 수는 10%정도에 불과하다. 이 나라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엘리트/지배계급과 못하는 일반대중/피지배계급’ 사이의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런 현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난다(정시호 2000 pp. 41, 59; 후나바시 요이치 2000 pp. 103, 193). 물론 영어공용어론자들이 기대하듯 영어공용어법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구사하는 이중언어사용자도 나오겠지만 다른 이중언어국가의 예로 볼 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주 12 참고).

회인데, 이 나라에서는 복수공용어가 지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라망권(57%)과 불어를 사용하는 왈론권(32%) 그리고 독일어권이 고질적인 갈등을 보여오고 있다. 이 나라 수도인 브뤼셀의 자치의회는 언어에 따라 플라망 의회와 왈론 의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600년 전통의 루뱅대학도 네덜란드어와 불어의 두 언어권으로 분리되어져 있다. 또한 같은 이념을 가진 정당도 플라망계와 왈론계가 따로 존재하며 심지어 한 정당내에서도 플라망계 당수와 왈론계 당수가 공존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각료 수도 헌법에 따라 언어별로 구성되고, 외무장관의 경우 벨기에를 대표하는 장관과 각 언어권을 대표하는 3명의 장관 등 모두 4명의 외무장관이 존재하고 있다(정시호 2000 pp. 272-279 ; 중앙일보 1999.11.27일자, 2001.2.20일자). 한편 냉전종식이후 옛 유고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스니아내전과 코소보사태 등에도 언어문제가 크게 관련되는데, 유고공화국시대에 이 지역은 11개 정도의 민족이 6개 정도의 복수공용어를 사용하면서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으나 냉전종식후 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각 언어간, 민족간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것이 내전으로 비화한 것이다(정시호 2000 pp. 279-286).

영어사용계층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에서의 또 다른 변화는 한국어 및 한국어사용자의 사회적 위상 문제이다. 즉 우리사회가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사회가 되면 한국어의 위상은 상당히 격하될 것이며, 이러한 언어에서의 위상은 언어사용자의 사회적 위상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공용어론자들 중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더라도 한국어를 주공용어, 영어를 부차적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정시호 200 pp.7-8 참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영어가 공식업무에서의 공용어가 되고 한국어는 가정언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 언어가 소위 국제어 혹은 지배어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국제어(지배어)는 통상 현지어와 공용(共用)되다가 점차 현지어를 가정으로 밀어내거나 소멸시키고 그 사회의 공식 업무언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그에 따라 현지어 사용자도 점차 그 사회의 중심부에서 멀어지게 된다(정

시호 2000 p. 67 참고). 실제 네덜란드에서는 영어가 공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이 나라에서의 고민은 영어사용 증가로 인한 네덜란드어의 위축현상이다. 즉 대다수 학자들이 영어로 학문활동을 하는 등 직업적 업무나 과학기술 등 진지한 사안이나 높은 사유를 요하는 경우 영어가 사용되고 네덜란드어는 가정에서의 가족간 대화나 정서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가정언어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정부는 네덜란드어로 학문활동을 하면 장려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네덜란드어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정시호 2000 p. 61 ; 후나바시 요이치 2000 p. 173 ; EBS 미래토크 ‘영어는 세계공용어가 될 것인가’ 2000.3.5일 방영).

## 6. 결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되면 영어공용어론자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국민 모두가 영어를 다 잘 하게 되기 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어계층과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어계층, 그리고 일부 한국어와 영어를 다 잘 하는 이중언어계층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또한 복거일(1998,2001)과 고종석(1998)이 예상하듯 처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자녀에게 한국어와 영어 중 선택하여 습득하게 한다면 그 성공 여부를 떠나 현재의 우리 국민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인 바, 영어공용어화가 시행된다면 한국어는 크게 위축되어 가정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영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이러한 언어로 인한 사회분열과 한국어 위축 그리고 5장에서 언급한 영어공용어화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영어사용자를 ‘늘리는’ 것이 우리사회에 더 유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영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화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영어문제를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는 영어교육을 보다 더 조기에 실시하자는 것이다.<sup>18)</sup> 즉 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어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시기와 언어경험이 중요한데, 이 중 학습시기 조건은 우리의 의지 혹은 선택만으로 비교적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바, 모국어습득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되도록 일찍 학습을 시작하고, 나머지 언어경험의 조건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영어교육 비용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지 모를 영어공용어화 등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통해 확보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영어경험 확보 방안으로는 몰입학습(immersion programs) 등 교육방식에서의 개선과 방송매체, 지역사회와의 공조 등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통한 언어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sup>19)</sup> (구체적인 조기외국어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호(2001)을 참고).

---

18) 세계화와 함께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자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심내용 중 하나는 ‘조기 다언어 교육’, 즉 외국어 학습시기의 저연령화이다(정시호 2000 pp. 63-65). 조기외국어교육과 모국어습득 사이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호(2001), 정시호(2000 pp. 46-48)을 참고.

19) 우리 사회의 영어문제를 위해 조기영어교육을 제안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영어공용어정책보다는 조기영어교육정책이 실현가능성면에서나 사회적 비용면에서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며, 만약 우리 사회의 영어능력향상이 정말 시급하다면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치는 영어교육을 개선하고 영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영어학습동기를 고취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영어교육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현재와 같은 전근대적인 영어교육방식, 즉 주로 씌어진 글을 읽고 해석하는 이해 위주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의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표현 위주의 적극적 방식을 도입하고, 영어구사력을 충실히 갖춘 자격 있는 영어교사를 양성하며, 무엇보다 교실 안팎에서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미래의 지구촌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민족주의 논쟁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국가적 언어자원의 확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박영순 1997 pp. 36-37 참고).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나 단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직접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영어의 극복은 필수적일 것이다 (후나바시 요

한편 주지하다시피 세계는 점점 더 좁아져 미래 어느 시점에는 전 세계가 모름지기 하나의 지구문명권, 즉 동일문명권으로 통합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구문명권 전체를 아우르는 공용어 즉 국제어가 탄생할지도, 그 언어가 영어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한 단일 국제어가 전 지구를 석권하는 것이 인류문명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지구촌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런 흐름을 인정하고 동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움베르토 에코가 지적하듯 바벨탑의 신화는 인간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을 수도 있다(정시호 2000 p.68 재인용). 즉 라틴어가 유럽공용어였던 중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어가 지구상에 하나 뿐이었다면 인간과 사회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각각의 언어는 서로 다른 각각의 세계를 표상하는 바,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는 다양한 사고의 교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거일이 주장하듯 만약 국제어에 밀려 많은 언어들이 박물관 언어가 되어 소멸한다면 이는 사라지는 언어 수만큼의 인류의 지적 재산과 정신적 노력이 같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일 영어라는 단일 언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면 이는 인류문명이 겪을 최대의 지적 재난이 될 수도 있다(정시호 2000 pp. 68-78 참고).

---

이치 2000 pp. 30, 38, 216 참고). 한편 한학성(2000 pp. 68, 80-83)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모델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를 들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영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통해 국민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영어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교육대학에서의 견실한 영어교사 양성, 방송매체들의 실생활 영어접촉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등과정에서의 6년 정도의 순수한 공교육만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있으며, 덧붙여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영어성취 동기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덴마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어교과목 수업의 대부분이 영어로 진행되며 실제적인 영어구사력이 영어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종석(1998)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 인물과 사상 8호, 강준만편, 개마고원
- 박경자(1984) 심리언어학, 고려대출판부
- 박영순(1997) 이중/다중언어 교육론, 한신문화사,
- 박이도(1996) 모국어습득과 외국어학습, 한국문화사
- 북거일(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01) “영어문제의 본질과 대책”, 계간 사회비평 28호, 나남출판
- 양동휘(1994) 문법론, 한국문화사
- 이영자 & M. Kastner(1998) “The Advantages of Early Foreign Language Educ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제 5권 1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이흥배 외 2인 역음(1999) 오늘의 문법, 우리를 어디로, 한신문화사
- 정시호(2000) 21세기의 세계 언어전쟁, 경북대출판부
- 최종호(2001) “언어습득이론을 통해 본 조기의국어교육”, 서어서문연구 20호, 한국서어서문학회
- 한학성(2000)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 책세상
- 후나바시 요이치(2000) 나는 왜 영어공용어론을 주장하는가, 홍성민역, 2001, 중앙 M&B
- Chomsky, N.(1986) Knowledge of Language, Praeger, USA
- Cook, V.J.(1989) Chomsky’s Universal Grammar, 김상기역, Chomsky의 보편문법, 1993, 한신문화사
- Hamers, J.F & Blanc, M.H.A(1983) Bilingualité et Bilinguisme, 이혜란외 5인공역, 2개 언어상용과 그 이론, 1995, 한국문화사
- López Ornat, Susana(1994) La Adquisición de la Lengua Española, Siglo Veintiuno Editores, España
- Pinker, S.(1994) The Language Instinct, 김한영외 3인 공역, 언어본능, 1998, 그린비

## &lt;Resumen en Español&gt;

## Un Estudio sobre la Oficialización del Inglés en Corea

Jong-Ho CHOI (Dep. de España y América Latina)

Las argumentaciones sobre la oficialización del inglés se derivan de la suposición de que en el futuro casi todos los países del mundo constituyan un 'imperio mundial' y, para entonces, el inglés ocupe la posición de la lengua común del mundo. Según las propuestas, para aprender fácilmente el inglés y para que la gente lo hable fluidamente, la casi única manera es aceptarlo como lengua oficial de nuestra sociedad. Este trabajo, primero, estudia los beneficios de la oficialización del inglés en su aprendizaje, y luego consideramos su posibilidad en Corea. Para nosotros, la oficialización, si se consigue en un sentido verdadero, nos ayudará mucho a nosotros, especialmente a nuestros hijos, a aprender o adquirir el idioma inglés, puesto que hará corriente el uso del inglés en nuestra sociedad y ofrecerá bastante experiencia en la práctica del lenguaje, la cual es uno de los dos requisitos para adquirir una lengua. La ventaja se puede comparar con el caso de aprender una lengua extranjera en la sociedad donde se usa la lengua como idioma materna o segunda lengua. Sin embargo, argüimos, no es posible la oficialización del inglés en nuestra sociedad porque la gente no lo habla bastante bien. En otras palabras, la oficialización de una lengua podemos conseguirla sólo cuando la hablamos tan bien como lo usa en la vida diaria. Para sostener nuestras argumentaciones, nos basamos en las teorías de la adquisición del lenguaje y nos aprovechamos de los ejemplos o las

experiencias que ya han tenido otros países en que había un cambio en la lengua oficial o en que se hablan más de dos lenguas oficiales. A nuestro entender, para resolver el problema del aprendizaje del inglés, o en general el problema del aprendizaje de la lengua extranjera en nuestra sociedad, es necesario primero el cambio o la reforma en la metodología de la educación de la lengua extranjera, y además, la oficialización del inglés podemos iniciarla sólo cuando tengamos éxito en dicho cambio o reforma. Si se realiza la oficialización del inglés sin esos preparativos, resultaría que se divide nuestra sociedad en dos o tres partes según la lengua que se habla, y el poder del coreano se reduciría considerablemente en nuestra sociedad.